

스무 살 '테니스 황제'... 화려한 대관식

알카라스, Wimbledon 남자 단식 조코비치 3-2로 꺾어 장기집권 '빅3 시대' 잠재울 절대 강자로 급부상



스페인의 '셋별' 카를로스 알카라스(20)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Wimbledon 테니스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 원) 남자 단식 결승에서 대회 5연패를 노리던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를 무너뜨리며 새 시대를 열어젖혔다.

알카라스는 1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끝난 Wimbledon 남자 단식 결승에서 4시간42분 만에 세계랭킹 2위인 조코비치를 3-2(1-6 7-6(8-6) 6-1 3-6 6-4)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 235만 파운드. 이날 승리로 남자 테니스 '빅3'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남자 단식 20회 우승 고지를 밟은 '황제' 페더러(스위스)는 지난해 은퇴했다. 메이저 대회에서 22차례 우승한 '황신'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내년 은퇴를 예고하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와 함께 '빅4'로 꼽히기도 했던 앤디 머리(영국)는 고관절

부상을 이겨내고 선수 경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상의 기량을 유지해온 조코비치가 강한 모습을 보여온 Wimbledon 무대에서 알카라스에게 패배한 것은 테니스사의 가장 뜨거웠던 한 장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Wimbledon에서 '빅4'가 아닌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2년 레이턴 휴잇(은퇴선수) 이후 21년 만의 일이다.

조코비치는 이날 여러 번 코트에 나뒀다. 2세트와 3세트에 걸쳐 승부의 흐름이 알카라스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자 두 팔을 펼쳐 들며 좌절스럽다는 몸짓을 하기도 했다.

2018년 프로로 데뷔한 알카라스는 2021년 18세에 크로아티아 우마그 대회에서 남자 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마스터스 1000 대회인 마이애미 오픈, 마드리드 오픈에서 거꾸 우승하고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일궈 빅4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했다. 아울러 가장 어린 나이(19년 5개월)에 연말 랭킹 1위를 차지하는 기록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17일(한국시간) Wimbledon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했다. 부상으로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는 불참했던 알카라스는 지난달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 준결승에서 조코비치에게 1-3으로 완패했다. 알카라스는 3세트 초반부터 근육 경련을 일으

켰고, 이후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고배를 들었다.

알카라스는 긴장감 때문에 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2020년부터 함께해온 심리학자와 자주 면담하며 멘탈을 바로잡았다. 조코비치와 결승전을 앞두고는 또 한 번 멘탈 조연을 구했다고 한다. 이날 알카라스는 1세트에서 완패하며 실수를 반복하는 듯했으나 2세트부터 더 공격적인 샷으로 조코비치를 압박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베이스라인에서 때리는 강력한 샷과 허를 찌르는 네트플레이, 코트 전역을 커버하는 운동 능력을 겸비한 알카라스를 두고 조코비치와 페더러, 나달의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뒤 조코비치는 "알카라스는 우리가 오랜 기간 나달을 통해 봤던 놀라운 수비와 투쟁심, '스페인의 황소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한 선수였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알카라스 같은 선수가 경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알카라스는 매우 완벽한 선수"라고 말했다.

다음달 28일 개막하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 알카라스가 대회 2연패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나달 메드베데프(5회·러시아)를 제치고 올 시즌 ATP 투어 이상 레벨의 대회 우승 횟수 부문에서 1위(6회)로 나선 알카라스가 연말까지 랭킹 1위를 지켜낼지도 관심거리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디오픈 막차 탄 안병훈 "입을 옷 없어 빨래부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3위 오르자 출전권 얻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151회 디오픈에 출전하게 된 안병훈(사진)이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라 여분의 옷이 없다"며 행복한 투정을 부렸다.

안병훈은 16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노스 베릭의 더 르네상스클럽(파70·7237야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900만 달러·약 117억 원)을 최종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마쳤다. 공동 3위에 오른 안병훈은 이 대회 상위 3명에게 주는 메이저 대회 디오픈

출전 자격을 따냈다. 안병훈은 17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85위로 지난 주보다 46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안병훈이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든 것은 2021년 4월 96위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디오픈은 20일부터 나흘간 영국 잉글랜드 위털의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



PGA

서 펼쳐진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디오픈 무대에 서게 된 안병훈은 "원래 내일 돌아가는 일정이라 여분의 옷이 없다. 오후 내내 빨래만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훈은 "디오픈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경기를 치르면서 디오픈을 목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 주는 티샷부터 그린까지 플레이가 잘 됐고 샷감도 돌아왔다"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PGA 투어에서 아직 우승이 없는 그는 2015년 DP 월드 투어에서 1승, 지난해 PGA 2부 투어에서 1승씩 따냈다.

'한중 탁구 커플'로 유명한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외아들이자 안병훈은 "프로 자격으로 처음 디오픈에 나갔던 코스에서 올해 대회도 열린다"며 "그때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 컷 통과도 했다"고 디오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살렸다. 또한 "2014년 대회보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병훈은 2014년 디오픈에서 공동 26위를 기록했다. 그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2019년 US오픈 공동 16위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유럽 최강 그랜트, LPGA 첫 우승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정상

지난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를 휩쓴 린 그랜트(스웨덴·사진)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그랜트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다나오픈(총상금 175만 달러·약 22억7500만 원)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했다.

US여자오픈 챔피언인 앨리스 코푸즈(미국)의 추격을 3타 차로 따돌린 그랜트는 LPGA투어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6타 차 낙성한 여유를 안고 최종 라운드에 나선 그랜트는 이렇다 할 위기가 없이 선두를 지켜 우승까지 내달렸다.

11번(파4), 13번 홀(파4) 징검다리 버디를 잡아냈을 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푸즈는 14-18번 홀에서 버디 4개를 뽑아내며 막판 추격전을 벌였지만 타수 차를 3타로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코푸즈는 이날 6언더파 65타를 쳤다.

6타를 줄인 린디 덩컨(미국)이 15언더파 269타로 3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는 한 명도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